

SPORTS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희망을 찬다, 미래를 잇다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이 생깁니다. 꿈은 현실이 됩니다."



광주FC, 유망 선수 육성 본격화 기획재정부 승인... 유소년재단 출범

광주 지역 축구 인재 발굴과 유소년 육성을 위한 공익법인 '광주FC 유소년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광주FC 유소년재단은 13일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와 후원 시스템 구축 등 모든 법적·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포함한 유망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과 함께 재단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 후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자에게는 광주시의 5대 시정 철학과 유소년 선수들의 꿈을 형상화한 '기부 팔찌'가 증정된다. 이 팔찌는 5개의 별빛 디자인으로 제작돼 지역 상징성과 의미를 담았다.

모든 후원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가 공제되며, 법인 후원 시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후원자에게는 구단 IP 사용권, 경기장 보드 광고권, 구단 유니폼 광고권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제공된다. 후원은 광주FC 유소년재단 공식 홈페이지(youth.gwangjufc.com)를 통해 가능하며, 계좌이체, 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지원된다.

노동일 광주FC 유소년재단 이사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후원을 통해 광주 축구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역 사회의 관심과 성원이 광주 축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민재, 10대 유망주들과 친선경기

독일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10대의 어린 선수들과 함께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다.



뮌헨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레지그르트 경기장에서 그라스호퍼(스위스)와 프리시즌 친선경기를 벌여 2-1로 이겼다.

17일 슈투트가르트와의 수퍼컵 경기로 2025-2026시즌을 시작하는 뮌헨이 마지막으로 치른 친선경기였다.

앞서 리옹(2-1), 토트넘 홋스퍼(4-0) 등 강호와 잇따라 스파링한 뮌헨은, 이번엔 체력이 낮은 그라스호퍼를 상대하면서 유망주들을 대거 기용했다.

선발 전열의 절반 이상이 20세 이하였고, 10대가 5명이나 됐다.

김민재는 이들과 함께 선발 출전했다.

18세 마그누스 달피아츠와 함께 포백 수비라인의 중앙수비를 맡았고 포지션 경쟁자인 요나탄 타와 후반 17분 교체됐다.

김민재는 리옹전에서는 선발로 나서 전반 45분을 소화했고, 토트넘과 경기에서는 후반 중반에 교체 투입됐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치러지는 올 시즌, 김민재는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라스호퍼에서 뛰는 스트라이커 이영준은 후반 19분 니콜라스 무치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밟아 김민재와 직접 대결하지는 못했다.

뮌헨은 이날 전반 21분 레나르드 칼, 전반 26분 요나 쿠시아사레의 연속골로 앞서나갔고, 후반 6분 로리스 잔도메니코에게 실점했다. 연합뉴스



'하위 스플릿 위기' 광주FC, 중위권 재탈환 시동



1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서 대전전 승점 32점 리그 7위...6위 울산HD와 2점차

하위 스플릿권으로 하락한 프로축구 광주FC가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중위권 재탈환을 노린다.

광주는 오는 1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10일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0-1로 패배했다. 이날 광주는 전반 추가시간 상대 홍운상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무너졌다. 경기 내용도 아쉬웠다.

상대는 5차례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광주는 단 한 번도 유효슈팅을 때리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전북전에 이어 올 시즌 첫 2연패를 당했다.

순위 또한 기존 6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 간신히 상위 스플릿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 번의 패배로 하위 스플릿권에 위치했다.

현재 광주는 리그 25경기에서 8승 8무 9패 승점 32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리그 1위 전북현대(승점 57), 2위 대전(승점 42), 3위 김천상무(승점 40)과는 거리가 멀다.

고무적인 건 다른 팀과는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이다. 4위 포항(승점 38)과는 다소 격차가 있지만, 뒤집지 못할 차이는 아니다.

5위 FC서울(승점 37)과 6위 울산HD(승점

34)는 2~3경기 안에 뒤집힐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남은 일정을 잘 풀어가면 충분히 상위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리그 8위 강원FC(승점 31)부터 리그 11위 FC안양(승점 27)까지 모두 승점 1~2점 차이로 줄 서 있다. 사실상 매 경기 사실상 결승인 단두대 매치가 될 예정이다.

광주는 최근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 위닝 멘탈리터를 깨워야 하는 광주는 절치부심의 자세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친다. 광주가 대전전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한다면 기세를 탐과 동시에 상위권 재도약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전과의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안방에서는 2019년부터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는 공격적인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서 K리그 데뷔전을 치른 영입생 프리드손스의 발끝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당시 프리드손스는 후반 교체 투입돼 약 10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운 경합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정호 감독 역시 프리드손스의 적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대전과의 경기를 통해 홈 데뷔전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가 대전을 상대로 상승세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경기 시작 전에는 프리스타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축구 스피드 리프팅 세계 기록 보유자인 장우성씨의 프리스타일 공연이 펼쳐져,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선수단, 전국체전 출전 준비 완료

49개 종목 180종별 1737명 참가
도체육회, 훈련지원금 등 사전 준비

'너마저'...윤영철 시즌 아웃
내달 팔꿈치 인대 수술

전남도 선수단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49개 종목 180종별 1737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 전남 체육의 저력을 과시한다.

1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선수단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부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총 49개 종목 180종별에서 1737명이 참가신청을 마쳤다.

전남 선수단은 지난해 제105회 전국체전(49개 종목 177종별, 1658명) 대비 종별 3개·선수단 79명이 증가했다. 전체 50개 종목 201종별 중 수중수영 1개 종목을 제외한 49개 종목 180종별에 출전할 예정이다.

전남 선수단은 육상·양궁·당구·댄스스포츠 등 전통 강세종목을 비롯해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축구·레슬링·요트 등 다수 종목에서 우수 성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해 대비 종별과 선수단이 증가한 만큼 더 많은 메달과 전국대회 및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선수들의 금빛 소식을 기대한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대회의 우수 성적을 목표로 훈련지원금, 장비비 지원, 전지훈련 실시, 현장 격려 등 다각도의 사전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다.

대회 기간에도 경기장 현장 방문 격려를 비롯해 전남스포츠과학센터의 심리 상담, 스포츠 마사지, 의료 지원 등 선수단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선수단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49개 종목 180종별 1737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다. 사진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 임장하는 전남도 선수단 모습.

전남도가 목포대학교 육상 및 탁구팀 창단을 비롯해 행정기관직업팀의 우수선수 보강, 학교 체육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도모 등을 통해 전국체전을 위한 내실 있는 준비를 해온 만큼 메달 전망도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제106회 전국체전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전남 체육의 저력을

전국에 알릴 절호의 무대"라며 "도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전남 대표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2024년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금 43, 은 42, 동 84개 등 총 169개 메달과 종합득점 3만2363점을 획득하며 103회 전국체전 참가 대비 한 등위 상승한 종합 12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타이거즈 좌완 투수 윤영철(21)이 수습대에 오른다.

KIA는 13일 "윤영철이 9월 4일 일본 요코하마 미니미 공제 병원에서 왼쪽 팔꿈치 내측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윤영철은 올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팔꿈치 인대 수술은 1년 이상의 재활 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시즌 복귀도 불투명하다.

앞서 윤영철은 지난 7월 10일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정밀 검진을 받았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골극근 부분 손상 소견을 받았다. 이튿날 1군 엔트리에서 탈락된 그는 최근 재검진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들은 뒤 수술 일정을 잡았다.

2023시즌부터 KIA 선발 로테이션 한 축을 맡았던 윤영철은 올 시즌 13경기에서 2승 7패 평균자책점 5.58의 아쉬운 성적을 냈다.

송하중 기자

